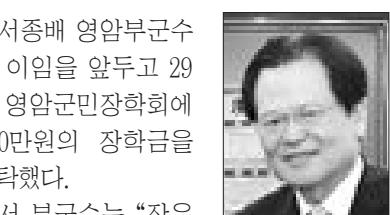


광주대 대학원장 오창수 교수



오창수 광주대 교수가 8월 1일 광주대 대학원장에 취임한다. 꼭성 출신인 오 교수는 공대 토폭공학과 교수로 공과대학 학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국가행정개혁위원회 자문위원, 광주시 시정자문위원 및 도시계획위원, 전남도 정조정위원 및 건설기술심의위원,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 회장, 육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서종배 영암부군수 장학금



서종배 영암부군수는 이임을 앞두고 29일 영암군민장학회에 3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서 부군수는 “작은 정성이나마 영암의 교육발전과 인재육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 2월에 출범한 영암군민장학회는 그동안 군민과 향우들의 성금이 도착해 25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했다.

주영찬 전 담양부군수 장학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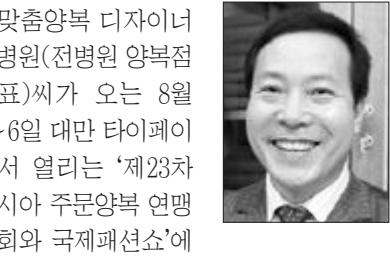


2년 동안 담양군수 부재로 군수권한대행을 맡았던 주영찬 전 담양부군수가 29일 이임식에서 담양장학회에 500만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했다.

주영찬은 “2007년 7월 담양부군수로 부임해 3년 동안 담양의 발전을 위해 힘썼으며 특히 2008년부터 약 2년간 군수권한대행을 맡아 민선 4기 담양군정을 이끌어 왔다. 주영찬 전 부군수는 전남도 인사에 따라 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맞춤양복 디자이너 전병원씨

대만 ‘亞 주문양복총회’ 참가



맞춤양복 디자이너 전병원(전병원 양복점 대표)씨가 오는 8월 1~6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제23차 아시아 주문양복 연맹총회와 국제페션쇼’에 광주·전남대표로 참가한다.

아시아 14개국에서 약 50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 전씨는 징장수트 출품과 재단·재봉 기술시연 등을 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전씨를 비롯 전국에서 약 16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전씨는 한국섬유신문사가 선정한 ‘2009년 패션브랜드 대상’에서 맞춤양복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경필상기자 kps@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족

▲정인옥씨 손자 문제민(전남대 의과대학생)군 김종신(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이정숙씨 장녀 은수(전남대병원)양=31일(토) 낮 12시10분 서구 농성동 광주메리어트웨딩홀 1층(사파이어홀)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프르네 학습증진컨설팅 저소득층자녀 무료상담=학교부적응, 성적부진, 성적저하, 교우관계, 정서장애, 게임중독 등. 010-6392-7137.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공개강좌=8월21일(토) 오후 2시~5시

광주대 호심기념 도서관 5층 양택, 음택, 수막, 나경·입향론, 비결록명당, 장법요강 등 이론과 현상 제시 (책자무료제공). 011-609-8117, 062-670-2161.

▲시민을 위한 미술치료무료강좌 =8월6일(금)까지 오전 9시30분~12시 마음을 그림으로 치유하는 미술치료(일반·교사·학생 남·녀 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수강료 무료) 일 신중학교 평생교육원(교수 조정아) 011-610-6589.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광주자원봉사센터 어르신자원봉사단 모집=30일(금)까지 모집, 60세 이상. 예절교육, 학습도우미,

교통질서계도, 무료급식봉사, 공원 및 놀이터 환경미화, 문화유적해설, 숲 지킴이, 복지관 프로그램 지원, 기초질서캠페인 자원봉사활동. 문의는 국번없이 1365.

▲유급지원병(전문병) 모집=중졸 이상 학력으로 해당 특기·자격·면허 또는 전공학과 이수자, 모집 인원 1천명, 의무복무기간은 일반병과 동일, 연장복무기간은 하사로 영내 거주하며 이 기간중 월 120만원·지원장려수당 월 60만원 지급. 문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팀 062-230-4246~9.

▲적십자사 수지침 봉사회 회원 모집=수지침 요법을 배워 사회봉사에 참여할 분. 무료. 018-610-3360.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 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불링 동호회 ‘다이아몬드’ 회원 모집=30세 이상 부부,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011-607-0347.

▲한국웃음협회 회원 모집=건강 회복과 웃음문화 보급을 위한 웃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016-607-1958.

▲어린이재단 전남가정위탁 지원 센터 위탁 이동·부모 모집=친부모

의 사망·기출 등으로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탁 아동과 봉사 차원에 서 아동을 양육해 줄 위탁부모 모집. 061-279-1225~6.

▲종합민요사랑모임 회원 모집=민요를 사랑하며 사회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 019-601-6989.

▲100회원회 회원 모집=1일 100원으로 부담없이 이웃 사랑 실천하실 분. 011-666-0660.

▲사랑의 교실 중·고등학교 과정 교사, 수강생 모집=국어·영어·수학·사회과목 무료 봉사자, 월~금요일 오후 7시~10시30분. 062-223-8529, 016-223-9541.

▲꿈을 드는 사람들(광주학당) 학생 모집=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 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무료 강의. 서방시장안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수도방위사령부 제33경비단 호남 전우회 모집=김인기(부회장·불사조 321기) 011-633-5747.

일 오후 7시~10시30분. 062-223-8529, 016-223-9541.

▲꿈을 드는 사람들(광주학당) 학생 모집=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 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무료 강의. 서방시장안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박남씨 별세 최복실·명남씨

모친상 이종원씨 빙모상=발인 30일(금)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

515-4488.

▲박길례씨 별세 김치빈·세빈(전

금호평생교육관장)·윤빈(광주학생 교육원)·제빈(사업)씨 모친상=발

인 31일(토) 학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382.

부동

▲박남석씨 별세 김행열·수현·선

▲노하길·오길·권길 씨 부친상 발인=30일(금) 10시. 장지: 문민경사 연락처: 250-4410. 밤인: 31일(토) 08시 장지: 국성 육파면 선영 연락처: 250-4405.

▲조치현·권현·보현·계현·율현 씨 모친상 염병용 씨 빙모상 발인: 31일(토) 08시 장지: 순천시 주민면 선영 연락처: 250-4419.

▲김문식·문석 씨 부친상 발인: 31일(토) 8시30분 장지: 회순 동북면 선영 연락처: 250-4412.

미국으로 돌아가는 강진 외국어타운 원어민 강사 세라 맥콜룸양

“정 많은 강진사람들 못잊을 겁니다”

“영어는 생활, 반복습관 길러야”

“한국의 학교생활은 조직적이고 단합된 분위기로 미국과 다르지만 다양한 매력이 있어요. 강진 사람들의 정에 들판 취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강진군과 미국 워싱턴주 스노콜미시와의 교환 학생으로 지난 6월부터 강진에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쳐온 세라 맥콜룸(Sarah McCollum·여·20) 씨가 3개월 만에 미국으로 돌아간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이어서 그런지, 학생들과 정이 더 들었다며 돌아가기 아쉽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세라씨는 “강진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좋아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됐다”며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영어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 실생활에서 편하게 사용하는 단어를 위주로 가르치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세라씨는 오전에는 강진 외국어타운에서 하루 2시간 정도 원어민교사를 도와 학생들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지역 아동센터의 초등학생들에게 무료로 영어를 교육했다.

특히 미국 스노콜미시 제2기 교환학생들이 강진을 방문해온에 따라, 현지 코디네이터 뿐만



세라씨가 강진 외국어타운에서 중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아니라 멘토 역할까지 하는 1인 3역을 소화해낸다.

세라씨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배불러’ 등 한국어도 제법 익숙해졌다. 김치나 불고기 등 한국 음식도 곧잘 먹는 등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해 “강진사람 다 봤다”는 찬사를 들었다.

세라씨는 “강진에 머무르는 동안 강진 학생들과 함께 행복하고 유익한 나날을 보냈다”이라며 “다음달 초에 미국에 돌아온 후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 흥보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강진은 음식이 풍부하고, 참 정이 많은 고장

입니다. 불거리도 많고요, 백성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제 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기회가 되면 다시 오고 싶습니다.”

세라씨는 또 “한국학생들은 문법을 완벽히 익히고 회화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그냥, 생활에 필요한 말들을 자연스럽게 익힌다는 생각으로 자주 반복하다 보면 영어가 늘 것”이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kwangju.co.kr

송기진 光銀행장 미소금융지원 식당서 봉사



송기진 광주은행장이 29일 우리미소금융지원단의 지원을 받아 식당을 창업한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조봉순 상무국밥’을 찾아 개업을 축하하고 음식 나르기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광주은행 제공)

전남체신청 ‘중복맞이 어르신 보양잔치’



전남체신청 빅족son 청장과 직원들은 29일 중복을 맞아 광주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삼계탕과 과일 등을 준비해 노인 600여명과 함께 ‘중복맞이 어르신 보양잔치’를 했다. (전남체신청 제공)

송화마을 휴먼시아, 바자회 수익금 이웃돕기



광주시 남구 송화마을 휴먼시아아파트 통합관리사무소는 송화동 통근어린이집에서 개최한 바자회의 수익금 전액을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에게 전달했다. (휴먼시아 아파트 제공)

온 국민에 웃음 준 코미디언 백남봉 별세



폐암으로 투병 중이던 원로 코미디언 백남봉(본명 박두식)이 29일 오전 8시40분께 별세했다. 향년 71세.

지난 2008년 늄마염 수술 중 암세포가 발견돼 폐암진단을 받은 백남봉은 경기도 한 재활원에서 요양하다 최근 병세가 악화해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치료를 받아왔다.

고인은 1967년 서울 블랙루즈 무대에서 희극 인생을 시작했으며 1969년 TBC 라디오 ‘장기자랑’을 통해 방송에 데뷔했다. 구수한 입담과 쾌활한 연기, ‘전매특허’인 성대모사 등을 개인기로 내세운 고인은 ‘원맨쇼의 달인’으로 불리며 1970~1980년대 정상의 인기를 누렸다. 여러 명의 코미디언이 함께 연기를 펼치는 콜트가 대세였던 당시 그는 시대를 앞서는 개인기로 ‘개그맨’적인 기질을 발휘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연합뉴스

삼가 故인의 夢福을 빙니다.



일 오후 7시~10시30분. 062-223-8529, 016-223-9541.

▲꿈을 드는 사람들(광주학당) 학생 모집=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 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무료 강의. 서방시장안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박길례씨 별세 김